

우리민족의 '근대인쇄' 시기를 따지자면 해방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해방 이전에는 근대식 인쇄가 별로 없었고 그나마 일제가 운영하던 인쇄소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의 인쇄역사 기록을 찾자면 1954년에 창간되어 오늘날까지 발행되고 있는 인쇄신문이 유일하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 역사를 더듬어 보는 의미에서 195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인쇄역사를 월별로 정리해 시리즈로 보도한다. 이번 호에는 1954년 이후 매년 11월에 보도되었거나 광고에 게재되었던 내용을 소개한다.

● 방염·방수 용지 개발돼

석유화학을 이용한 새로운 제지원료가 개발되면서 제지업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기사를 소개한다. 1973년 11월 1일자 인쇄문화시보는 국제적으로 펄프 확보난이 가중되어 가는 상황에서 석유에서 제지용재를 얻을 수 있는 원료를 발견하는데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시보는 이에 따라 동북아지역에 석유화학을 이용한 새로운 제지용원료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 빠르게 추진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소개됐던 석유화학을 이용해서 생산한 용지는 펄프용지와는 달리 습기가 없고 물에 빠져도 찢어지는 일이 없으며, 종이 신축도가 없고 중량이 가벼운 장점이 있었다. 또한 표백성이 좋고 인쇄적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가격이 기존 제품보다 30%이상 싸다는 이점 이외에도 펄프공장과는 달리 생산과정에서 공해가 전혀 없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시보는 이 제지용원료 공장건설을 탐색하기 위한 기술진이 한국 등 동북아일대를 순방중에 있다며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용지업계는 가격이 싸고 품질이 우수할 경우 석유화학 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공장이 국내에 빨리 건립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 서울북공고에 인쇄과 신설

서울기계공업고등학교 인쇄과가 폐과되는 대신 서울북공업고등학교에 인쇄과가 신설됐다.

1978년 11월 1일자 인쇄문화시보는 서울시교육위원회가 동년 10월 25일 발표한 1979학년도 서울시고등학교 신입생 선발고사 요령을 밝히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서울기계공고는 1979년부터 학생모집을 중지,

현 재학생을 졸업시킨 후에는 자동적으로 폐과되는 한편, 이에 대처하여 1979년부터 서울북공고에 신설된 인쇄과에서 신입생을 모집키로 했다.

서울공고인쇄과는 1954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정규인쇄교육기관으로 출발, 1978년까지 20년간 9백8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등 인쇄업계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서울공고 인쇄과의 폐과 문제는 당국의 공업학교특성화방침에 따라 서울공고가 서울기계공고로 되면서 존속문제가 제기되어 온 사항이었다. 시보는 현재의 인쇄과 재학생들은 서울기계공고에서 정규교육을 받고 졸업하기 때문에 서울기계공고 인쇄과는 1981년에 가서야 문을 닫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1979학년도부터 인쇄과 신입생을 모집하는 서울북공고는 성북구 하월곡동 90번지에 위치한 곳으로 기계화공, 건축, 전기, 전자, 통신, 토목 등 각과가 있으며 1963년 11월에 개교, 당시까지 11회의 졸업생을 낸 학교라고 소개했다. 시보는 서울북공고가 인쇄과 신설에 대비해 이미 인쇄과 실습실 등을 갖추고 신입생을 위한 기초 실습시설을 마련하게 되며 연차적으로 서울공고인쇄과 시설을 옮기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수요의 97%를 수입, 펄프공업 육성책 시급

인쇄문화시보 1971년 11월1일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제지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기본원료인 펄프공업의 육성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1971년 11월 1일자 인쇄문화시보에 의하면 1970년말 현재 우리나라 제지공업의 시설능력은 70개 공장에 50만9천2백 톤으로 이곳에서 생산되는 지류의 양도 33만톤에 이르고 있으나 그 기본원료인 화학펄프는 수요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 한 해 동안 소비된 외화만 해도 3천1백24만2천달러



에 달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원료의 해외의존도가 오늘과 같이 높은 이상 제지공업의 원활한 발전은 기대하기 곤란한 실정이며 국내인쇄, 출판업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 펄프공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당국이 좀 더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덤핑수주 위험수위 넘어섰다

인쇄업계의 '제살깎기식' 물량 수주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한마디로 위험수위를 크게 넘어섰다는 것. 1995년 11월 3일자 인쇄신문은 이로 인해 각 업체가 채산성 악화는 물론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전했다.

인쇄신문은 무자격 인쇄인들의 창업이 늘어나고 첨단시설이 급격히 늘면서 고가의 장비를 세워놓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행해지고 있는 '덤핑수주'로 인해 대학교수가 일간신문에 "조달청 기준의 인쇄비는 민간업자의 그것을 훨씬 상회한다"고 기고하는 기이한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업계전체가 곧 큰 위기를 맞이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1995년도 조달청 인쇄기준 요금은 1993년도 수준에서 불과 6.8% 인상되는데 그칠 바 있다. 1994년에는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됐기 때문에 2년만의 인상이던 셈.

그러나 같은 기간동안 근로자 평균임금은 24.9%나 인상됐고 인쇄용지 가격 또한 1994년 한 해에 27%, 1995년에 들어서만 20% 가까이 올랐다.

이에 대해 인쇄신문은 인쇄물 원가를 구성하는 인건비나 원부자재 가격인상률에 크게 못미친 기준요금 인상률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조달청 요금은 훨씬 높게 책정돼야 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연초에 계약한 인쇄물의 경우 중간에 자재가격이 오르

더라도 재계약이 어려워 이들 인상분을 인쇄업체가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덧붙였다. 당시 중소기업중앙회가 국내 20개 산업의 조업현황을 조사한 결과 인쇄업종이 부도가 많은 업종 3위를 기록했다는 것은 인쇄업종의 조업현황이 대단히 불확실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입증해 주는 대목이다.

인쇄신문은 인쇄인 대다수가 덤핑수주가 근절돼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도 이것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남을 탓하기 전에 나부터 덤핑수주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의식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1자 1타 방식 키보드 개발

1994년 11월 18일자 인쇄신문에는 타자를 할때 1자 동시입력 방식으로 기존의 2벌식 키보드보다 3배 이상 속도가 빠르고 오타가 방지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접목시킨 키보드 시스템이 소개됐다. 화제의 주인공은 국내 기업인 감퓨타시스템(대표 안문학).

이 회사가 개발한 키보드 시스템은 영문 키보드에 한글 기능을 추가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우리말 특성에 맞게 만든 제품으로 '김'이라는 글자를 입력할 경우 기존 자판으로는 'ㄱ', 'ㅣ', 'ㅁ'을 차례로 입력하지만 감퓨타 키보드는 이를 동시에 누르는 한 동작만으로 입력을 마칠 수 있다.

또한 이 제품은 워드프로세서와 각종게임프로그램 등과 호환되며 1백 여 가지의 약자기능을 내장했다. 이밖에도 기존의 2벌식 키보드의 한글과 영문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 회사 고유의 '감퓨타' 기능을 추가시켜 2벌식 사용자들도 2벌식과 감퓨타 기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치원 기자 kcw@print.or.kr